

농정뉴스

올해 농수산부문예산 7,680억원

'86대비 32.6% 증가로 소득확충에 주력

올해 농수산부문 예산(일반회계)이 '86보다 32.6% 늘어난 7천6백8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87년도 국가예산에 따르면, 금년도 정부의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15조 5천5백96억원으로 이중 농수산부문예산은 작년의 5천7백92억원보다 1천8백88억원이 늘어난 7천6백80억원으로 짜여졌다.

올해 농수산부문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4.2%에서 4.9%로 높아졌다.

이같이 농수산부문예산이 크게 확대된 것은 농외소득원유치센터

·농민교육원직업훈련강화·소규모기계화영농단 조직등 지난 3월 5일에 발표된 농어촌종합대책과 관련된 신규사업과 경지정리·배수개선사업확대, 농공지구조성과 같은 농어민소득원확충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난 때문이다.

이번 확정된 올해의 농수산부문예산규모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보다 11억원이 증가된 것이며, 농수산부문 예산증가율 32.6%는 국가전체 예산증가율인 12.7%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다.

쌀생산 목표량보다 93만섬 초과

최종집계 3천8백93만6천섬으로 6년 풍작

지난해 쌀생산량은 3천8백93만6천섬(현미기준 6백3만5천t)으로 최종집계됐다.

농수산부가 작황조사를 한 결과 △일만계 2천9백96만8천섬 △통일계(신품종) 8백92만9천섬 △

밭벼 3만9천섬 등 모두 3천8백93만6천섬이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쌀생산목표량보다 93만6천섬이 웃도는 것으로 '85년보다는 13만5천섬이 적으나 지난 5년평년작에 비해 1백40만2천섬이 증산된 것이다.

이로써 쌀농사는 지난 81년이후 연속 6년간 풍작을 이뤘다.

품종별로 통일계는 작년보다 3백7만8천섬(25.6%)이 준 반면, 일반계는 2백95만6천섬(10.9%)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태풍「베라」호의 피해로 전남·경북·강원등 일부 해안지방의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준반면 경기, 충남·북지역은 많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단보(3백평)당 쌀생산량은 △일반계의 경우 작년보다 12kg 늘어난 4백49kg △통일계는 작년보다 32kg이 준 4백72kg이다.

◇연도별 쌀생산량 (단위: 1천섬)

연도	생산량	일반계	통일계	밭벼
81	35,160	25,251	9,746	163
82	35,938	22,636	13,134	168
83	37,529	23,365	14,049	115
84	39,457	26,590	12,794	73
85	39,071	27,012	12,007	52
86	38,936	29,968	8,929	39

농어촌개발사업지구 坡州등 5곳 추가지정

정부는 忠南公州군등 3개군에 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어촌개발사업지구를 내년에는 京畿도 坡州군 등 5개군을 추가, 모두 8개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시범지구의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 현재 일반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별 분산투자개발보다 투자효율면에서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5개군을 종합개발지구로 추가지정,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추가지정된 농어촌종합개발사업지구는 ▲坡州▲鎭安▲寧越▲沃川▲咸陽등 5개군이다.

경지정리대상 확대 10ha미만 소규모도 대상

올해부터 2ha이상 10ha미만의 소규모 논에도 경지정리사업이 실시된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10ha이상의 논을 대상으로 실시돼온 경지정리사업을 올해부터는 10ha미만의 소규모 합배미논(산간지역의 경사진 논)이 모여있는 지역에도 확대키로 했다.